

채비

작고 아름다운 이별

2022년 9월 뉴스레터 vol. 57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채우고 비우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얼굴
알쓸신장 임종 전 준비하기, 유언 편
숫자로 보는 채비 정해진 방식 외 다양한 장례방식 선택하기 어렵다 90.8%
메멘토모리 현대의학의 '죽음 비즈니스'에 속지 않기 위해서
조합소식 웰엔딩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할머니의 먼 집' 영화상영회 후기

이별이 아닌 작별을 위한 시간

떠나기전愛



'떠나기전愛'는 채비의 **생애작별식** 프로그램입니다.
살아생전에 지인과 친척을 초대해
고인이 주인공이 되는 아름다운 작별식입니다.

▶ 주요 프로그램

생애사/생애영상, 취미 및 업적 전시/공연, 추억과 이야기 나눔, 마지막 인사와 축복,
음식과 다과 나눔

※ 프로그램은 당사자/가족의 요청으로 함께 기획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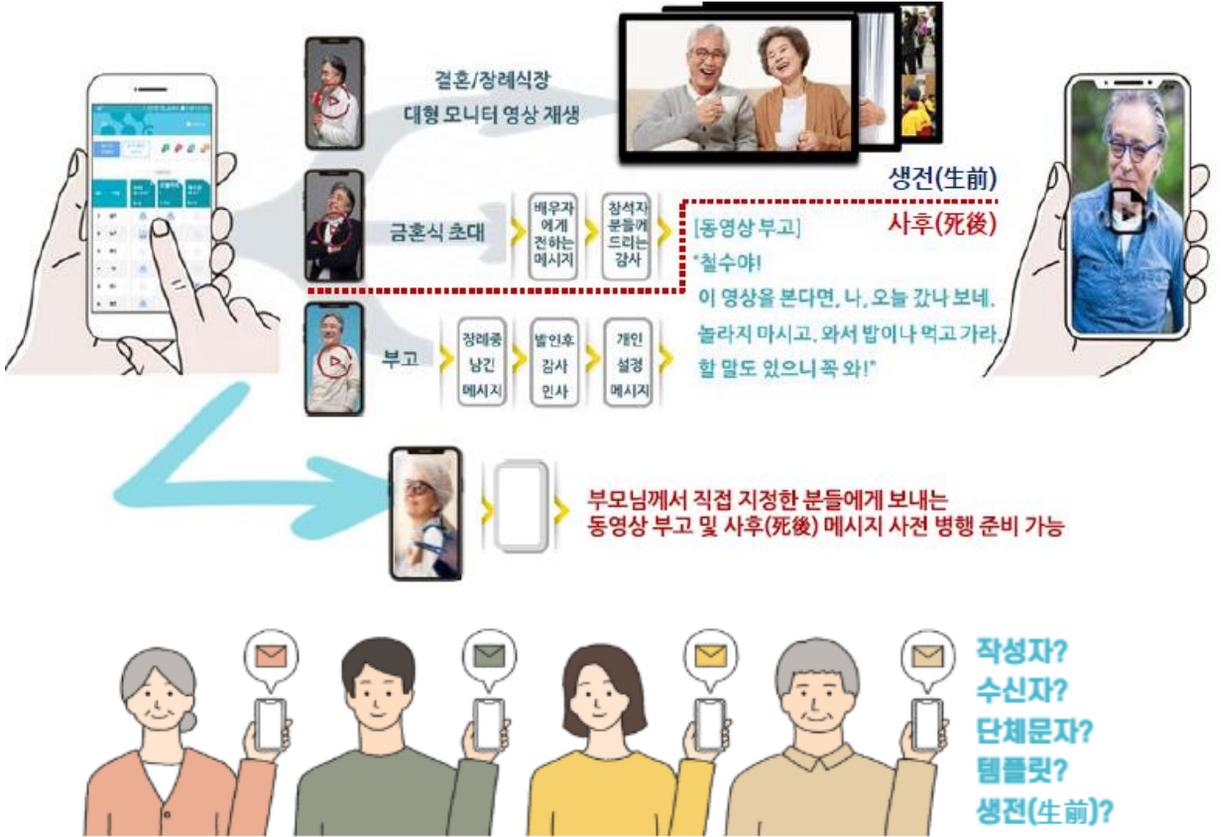
▶ 장소 : 공간채비 (충무로역 도보 5분)

▶ 신청 : <https://forms.gle/NKpVA2SuKCGDjKGG7>

☎ 문의/상담 : (02) 739-9517



본인(故人)의 부고(訃告) 및 사후(死後) 개별 맞춤형 메시지를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사람들에게, 순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메모비** 조합원 무료 프로모션



- 본인이 직접 메시지 받으실 분 지정, 메시지 전달 시점 설정 가능
- 실시간 초대자별, 시점 별, 개별 맞춤형 메시지 작성, 등록, 확인, 수정 가능
- 메시지는 동영상, 음성, 이미지, 텍스트 등 모든 형태로 작성 가능
- 본인 및 부모님 혹은 배우자의 부고 및 사후(死後) 메시지 전달 가능

▶ 메모비 소개

- 홈페이지 : <https://www.memovie.co.kr>
- 장례 메시지 서비스 예시 : <https://youtu.be/mkx31gb6Ya0>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조합원 프로모션 신청

- 장례를 준비하는 조합원(본인, 배우자, 부모님 등) 신청 시, 서비스 이용 쿠폰 제공

▶ 신청 : <https://forms.gle/fRNzCSy2CFWMUw2S6>

▶ 서비스 문의 : 1688-9374, memovieq@memovie.co.kr

우리가 기억해야 할 얼굴



주민등록 초본을 들여다본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계동 산 161번지부터 시작해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현주소로 끝났다. 표상으로 22번 옮겨 다녔다. 일곱 살에 시작해 오십 팔세까지 반세기의 이력이다. 영등포구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몇 번, 이십 대에 성남과 울산의 공장을 전전했으니 도합 30여 차례는 넘는 것 같다. 2년에 한 번은 떠돈 셈이다.

이사의 이력만큼 주거의 형태도 다채롭다. 아마 한국 근대 주택사의 개인 버전이지 않을까. 산동네 판잣집, 슬라브집, 반지하방, 쪽방, 옥탑방, 빌라, 연립주택, 아파트... 고시원만 빼곤 모두 섭렵한 것 같다. 한국전쟁 때 맨손으로 남하한 실향민의 장손으로 흠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영화 <기생충> 속 기억은 나에게도 있다. 나는 20대 때 누이와 함께 동대문구 휘경동 어느 반지하에서 살았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잠에 빠져 혼곤한 상태 속에서 나는 바닥이 축축해지는 것을 느꼈다. 누이도 위험을 감지한 듯 잠에서 깬고 우리는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싱크대 배수관에서 누런 흙탕물이 칼칼 쏟아져 들어왔다. 더러운 물은 순식간에 방바닥을 점령했고, 빠르게 수위가 높아졌다. 다행히 우리는 탈출할 수 있었다. 옷가지 하나 챙기지 못한 채 빠져나와 속수무책 비를 맞았다. 위층에 살던 주인아주머니가 놀라 뛰쳐나오며 수건을 건넸다. 얼마 후 우리는 그 집을 떠났다.

물난리를 겪은 얼마 후 나는 성남시 상대원동 제지공장에 취업했다. 신흥동 비탈에 있는 주택 반지하에 방을 얻어 출퇴근했다. 이 방은 반지하를 넘어 가히 '지하방'이라 할 만했다. 깊고 어두컴컴한 방엔 창문도 없었다. 칠흙같이 어두워 불을 켜기 전에는 천지분간이 불가능했다. 당시 성남엔 이런 지하방들이 꽤 있었다.

자고 일어나면 이부자리가 축축하게 젖어 출근할 때 옥상 빨랫줄에 이불을 널어야 했다. 비라도 내리는 날에는 이불이 젖어 옷만 입고 잠든 적도 있었다. 푸르고 검은 곰팡이는 점령군처럼 창궐했다. 주인할아버지가 몇 차례 벽지를 뜯어 방수액을 발라봤지만 아무 소용 없었다. 나는 이때 ‘방이 사람을 잡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다.

실제 집(방)은 자주 사람을 잡는다. 2022년 8월 8일 서울에 내린 폭우로 관악구 반지하 집에서 일가족 세 명이 사망했다. 홍아무개(46세)와 장애를 가진 언니, 13살 난 딸은 물이 차오르는 집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다행히 노모는 병원에 입원중이어서 화를 면했다. 홍씨는 수압 때문에 현관문을 열지 못했고, 통화량 폭주로 119 신고를 하지 못하자 엄마와 노조 동료들에게 도와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생애 마지막 문자였다. 홍씨는 면세점에서 20여 년을 일한 베테랑 직원이었다.

2021년 11월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지난해 2092만 7000가구 가운데 무주택 가구는 919만 7000가구로 1년 전보다 31만 가구(3.5%) 늘었다. 무주택 가구가 900만 가구를 넘은 것은 2015년 가구 단위 조사 시작 이후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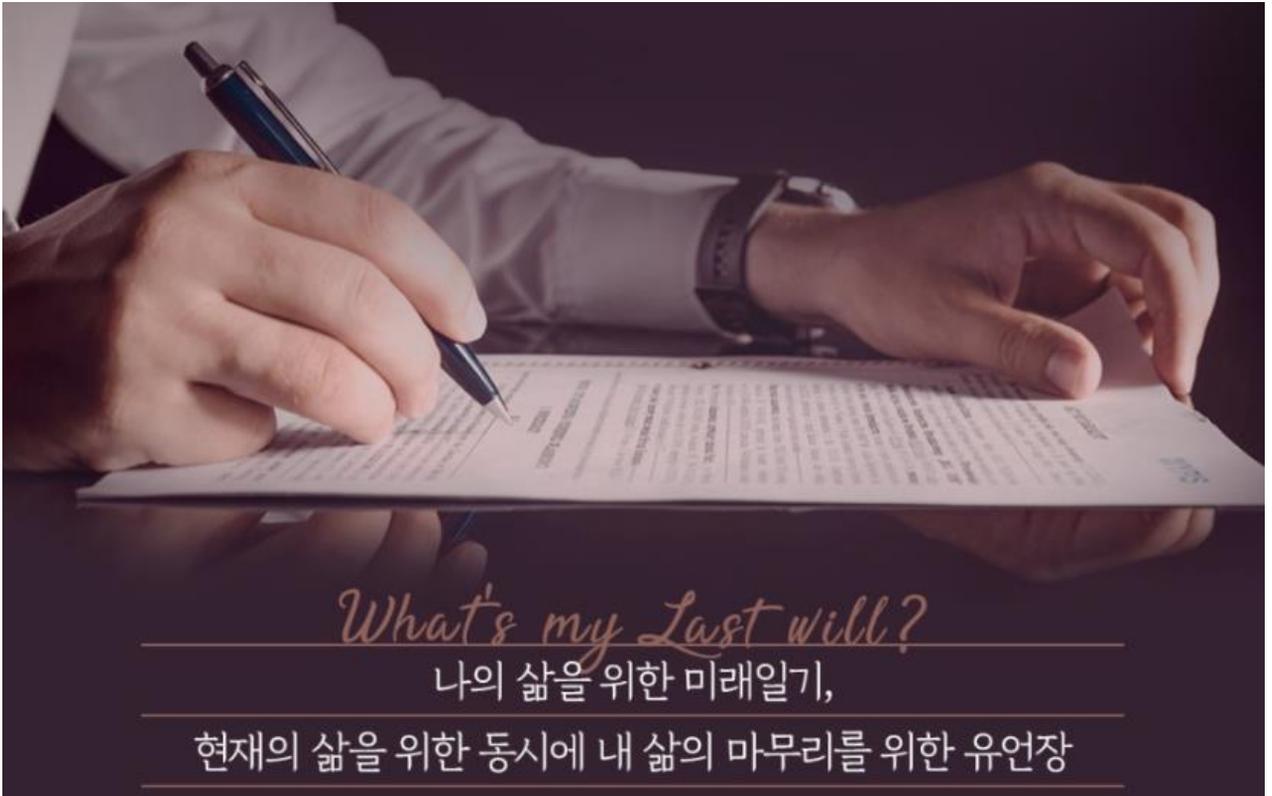
이 가운데 주거빈곤층은 15%에 달한다. ‘주택법에 규정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나 지하 및 옥탑, 비닐하우스·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상태’를 일컫는 용어이다. 선진국 대한민국에는 주거안전의 사각지대에서 생명을 위협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1백만 가구에 달한다.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가족의 가장 홍씨를 눈물 속에 떠나보내는 그의 동료들은 홍씨를 “가족과 동료를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추모했다. 그는 “많은 언론이 반지하 얘기하면서 홍씨의 삶이 궁핍했던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홍 부장은 너무나도 행복하게 풍족하게 살았다”며 “우리는 그 얼굴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경환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임이사

‘채우고 비우고’는 삶과 죽음에 관한 에세이입니다

임종 전 준비하기, 유언 편



유언이란 사람이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은 내 삶을 위한 미래일기로 현재의 삶을 위한 동시에 내 삶의 마무리를 스스로 준비함으로써 현재의 삶을 더욱 의미있고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유언의 장점

유언을 작성함으로써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고 대처하며 자신을 성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죽음 시 가족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길 수 있습니다.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유언은 민법(제1060조)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가 되며,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작성할 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언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 1) 가족관계 사항: 친생부인(아내 자식을 친자로 부정하는 일), 인지(혼외 자식 인정) 후견인 지정 등
- 2)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유증,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 출연행위, 신탁의 결정
- 3) 상속에 관한 사항: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지정 및 위탁, 상속재산의 분할 금지
- 4) 유언의 집행: 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유언의 종류

[1]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성명, 연월일을 말하고 증인이 유언의 정확성과 성명을 말한 것을 녹음하는 것입니다.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 등을 정확하게 말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 1명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형태의 유언으로 음향녹음장치나 기구로 녹음을 해야합니다.

[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손으로 직접 쓰는 형식의 유형으로 유언장 전문과 작성일자, 연월일, 주소와 성명을 직접 써야 하며 유언자의 인정 또는 도장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증인2명과 공증인의 앞에서 유언 내용을 구두로 말하면, 공증인이 필기 낭독 후 유언자와 증인이 필기의 정확성을 승인 후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 증인 :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유언자가 유언을 시작할 때부터 증서작성이 끝날 때까지 참여

* 공증인 :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 혹은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훼손하지 않고는 개봉할 수 없도록 굳게 봉하는 것)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질병 혹은 그 밖에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 구술 후 증인이 필기 낭독 후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 유언은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유언 작성 시 주의사항

① 자필증서는 반드시 본인의 날인(도장을 찍음)이 있어야만 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그 외의 4개 항목은 날인 혹은 서명이 요구합니다.

② 유언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 가장 마지막 날짜에 만들어진 유언을 따릅니다.

③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경우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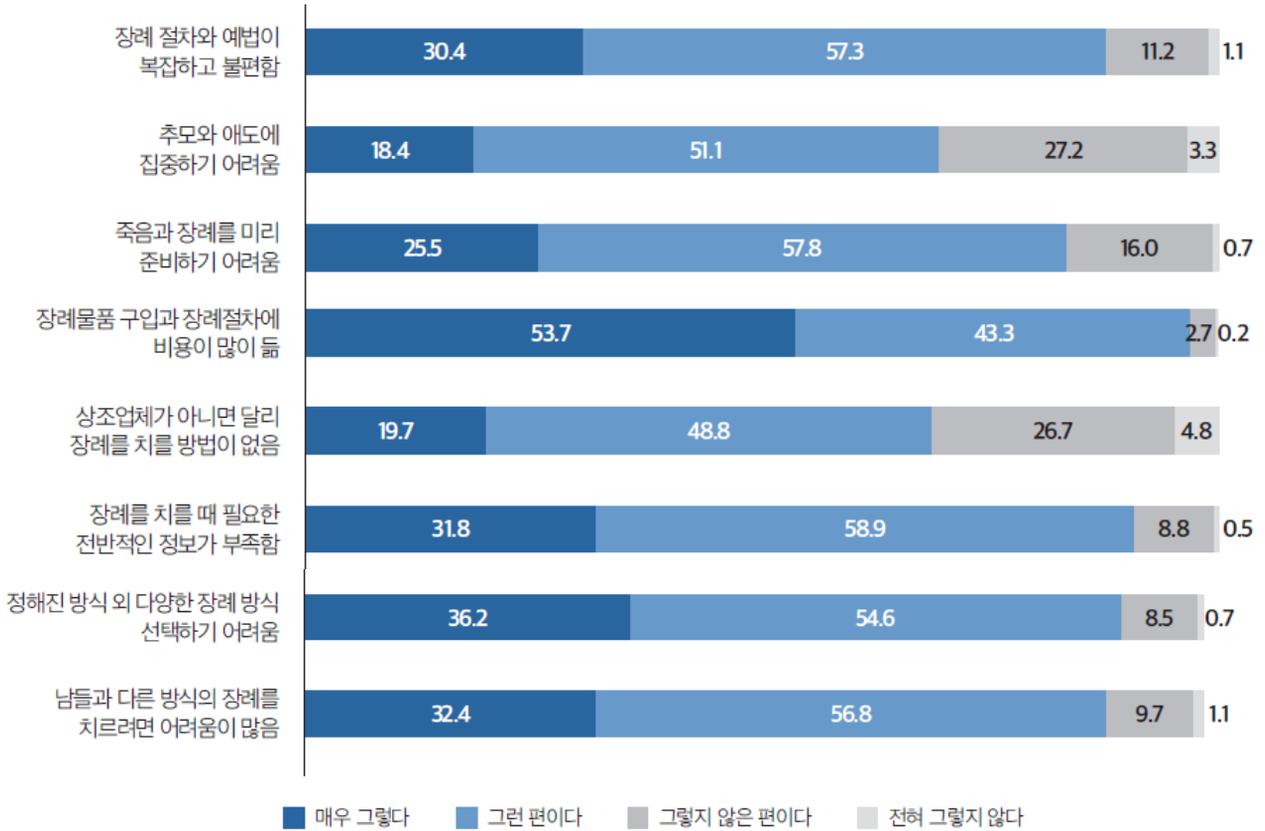
*내용출처: 사단법인 한국장례협회

‘알쓸신장’은 ‘알아두면 쓸데 있고 새로운 장례 이야기’입니다.
장례 상식 및 다채로운 장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1 한국의 장례 형식과 절차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정해진 방식 외 다양한 장례방식 선택하기 어렵다 9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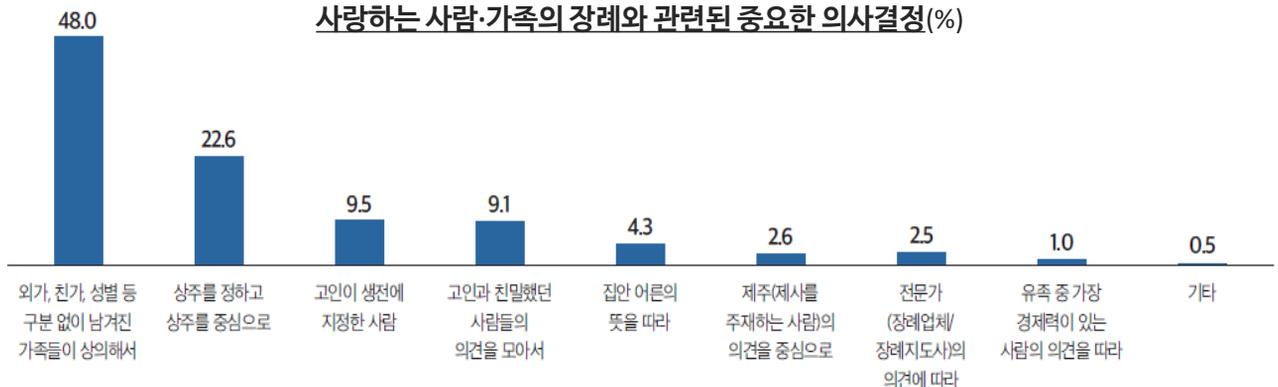
형식과 절차에 따른 인식 (%)



2 사랑하는 사람·가족의 장례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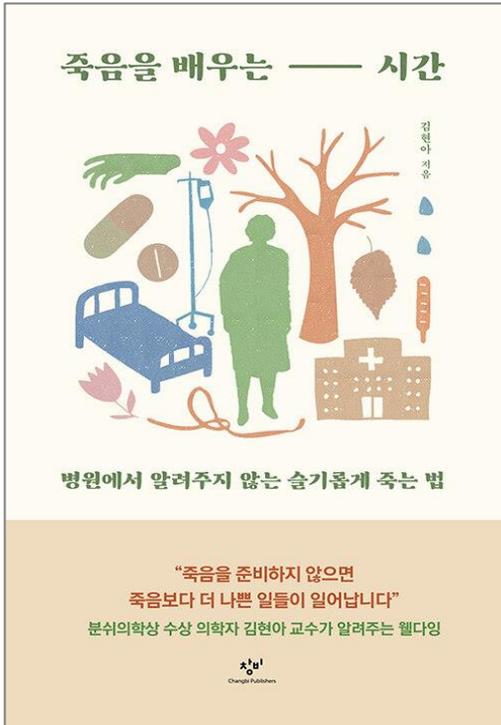
남겨진 가족들이 모두 함께 상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48.0%

사랑하는 사람·가족의 장례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



*자료출처: 한국 장례 국민 인식 조사, 2019. 전국20~50대 장례경험자 1312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현대의학의 ‘죽음 비즈니스’에 속지 않기 위해서



죽음을 배우는 시간

김현아 | 창비

100년 전만 해도 마흔살 남짓했던 인류의 평균 수명은 최근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인체의 기능은 거의 그대로인데, 사용 기간만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저자는 현대의학이 인간의 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지적한다. 말기 질환에 시달리던 환자가 결국 병원에서 숨을 거두게 되는 경우 의료인은 남은 가족과 슬픔을 나누고 이들을 위로하는 것이 인도적일 것이다. 그러나 현대 의료 시스템 속에서 의료진은 환자의 삶의 질과 죽음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기보다는 보호자에게 질책을 피하기 위한 선택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사망의 전 과정을 온갖 진단명으로 세분화하고, 그때그때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데 급급해지는 것이다. ‘죽음의 의료화’(medicalization of death)는 환자와 가족에게는 고통의 연장과 경제적 손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제한된 의료자원의 낭비를 안긴다.

『죽음을 배우는 시간』은 가족의 입장에서든 언제부터 마음을 정리하고 죽음에 관해 대화해야 할지,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상세하게 설명해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외에도 인체의 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능 저하와 대처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법과 임종장소 선택에 고려할 점 등 죽음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망라되어 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수없이 고민하면서도 죽음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떠올려보는 데 그치거나 미뤄두기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책에서 제공하는 실용적인 정보와 매뉴얼들은 ‘좋은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각자의 대답이 준비되었을 때 가장 쓸모 있을 것이다. 천편일률적으로 반복해 병원 신세를 지다가 갑작스레 죽음을 맞이하고 마는 한국 현실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오랜 고민과 준비가 필수적이다.

『죽음을 배우는 시간』은 암 진단을 받고 가족과 함께 긴 여행을 떠난 91세 할머니의 사례, 입원 권유를 거부하고 호스피스 치료로 가족과 함께 편안한 죽음을 맞이한 예, 안락사를 택하고 스위스에서 세상을 떠난 구달 박사 등 국내외의 다양한 웰다잉 사례를 소개한다. ✨

(출판사 책 소개 중에서 발췌)

‘메멘토모리’는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이며, 삶과 죽음에 관련한 문화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연합회] 웰엔딩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어떻게 웰엔딩을 할 것인가?’ 정책좌담회 후기



‘돌봄리빙랩네트워크’가 지난 9월 5일 오후 3시 ‘나우랩’에서 개최한 좌담회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어떻게 웰엔딩을 할 것인가?” 라는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좌담회에는 고치범 원장(한국장례문화진흥원), 박중철 교수(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전승욱 부장(한겨레두레협동조합)이 패널로 참여했고, 성지은 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사회를 맡았습니다.

〈나는 친절한 죽음을 원한다〉라는 책을 최근에 써서 완화치료와 연명의료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박중철 교수는 자기 삶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가려내고 회복하는 용기를 가져야 진정한 웰엔딩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웰엔딩에서 나타나는 용기의 실천적 모습은 바로 ‘자연사’를 선택하는 것과 자연사를 막는 제도와 법 개정 등에 대해 용기 있게 사회가 담론을 형성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치범 원장은 우리의 전통적 가치를 지키면서 보다 추모의 문화, 애도의 문화도 지키는 것, 또 현대사회에서 여러 가지 국토의 환경적 문화, 환경오염 문제를 융합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바람직한 문화를 성숙시킬 계기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독일의 가족 공원 묘지는 사람들의 일상 공간과 함께 있어서 늘 이용하고 휴식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예를 들면서 우리의 장례문화도 일상 가까스로 다가 올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승욱 부장은 생의 마무리를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하고, 추모예식을 통해서 고인의 삶의 이야기들을 잘 정리하고 기억하게 되어야 웰엔딩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이 규모가 자본 중심의 상조시장에서 아직 인지도가 낮지만 2009년부터 상조시장 건전화와 장례문화의 성숙을 위해서 충실히 사업해 왔음을 전했습니다.

추모식과 죽음준비교육 진행 과정과 앞으로 상실치유까지도 장례의 영역에 포함하여 ‘죽음준비-추모장례-상실치유’에 이르는 채비장례 3단계가 잘 구성 될 때를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웰엔딩으로 보고 있다고 역설할 때 모든 패널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임종기 환자들의 삶의 서사에 깊이 관심있는 박중철 교수는 추모식을 통해 임종기의 사람들이 자신의 서사를 아름답고 존엄하게 잘 구성하면 웰엔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고, 새로운 장례문화를 정책적으로 개선하는 일을 하는 고치범 원장은 한겨레두레의 사업과 실적을 잘 알고 있고 한겨레두레가 ‘채비장례 3단계’를 잘 형성해 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담회의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sanha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33>



(왼쪽부터) ▲전승욱 한겨레두레협동조합 부장 ▲고치범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원장 ▲박중철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교수 ▲성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출처 : 산학뉴스(<http://www.sanhak.co.kr>)

[서울조합] 한여름밤의 영화상영회 ‘할머니의 먼 집’ 후기



지난 8월 25일(목) 오후 7시 ~ 9시 공간채비에서 ‘여름 밤의 영화 상영’을 했습니다. 이소현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할머니의 먼집’입니다. 가족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죽기 전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해 죽음은 개인의 것인가 가족의 것인가?의 고민을 풀어보았습니다. 죽음에 관한 질문과 답은 다소 무겁지만 우리는 죽음을 통해 삶을 바라보니까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영화를 관람했고 감독과의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관람자 후기 일부〉

“할머니의 먼집' 영화상영회 너무 좋았습니다. 함께 보고 감독님과의 토크까지 하니 더욱 좋았어요.”

“할머니가 생각나서 보는 내내 울면서 봤어요. 우리 할머니도, 말년에 소주를 숨겨 사서 드시곤 하셨는데, 맨정신으로는 힘든 남은 여생이었구나 생각하니 무척 죄송하고 슬펐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다면, 어떤 태도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다리로 걸으려 하고, 의연함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에 숙연해지기도 했습니다.”

“공간채비에서 할머니의 먼 집 관람하고 왔습니다. 가족을 한번 더 살펴보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요즘 어렵지 않게 "웰다잉"이란 말들을 하지만 사람의 본심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며, "당신은 부르시겠고 저는 대답할 것이며, 당신은 손수 지으신 것을 그리워하실 것" 이라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머니의 활짝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오늘은 우리 엄마 팔짱을 끼고 중랑천도 걷고 온마을 축제에도 다녀올까 합니다.”

SUMMER NIGHT
공간채비
한 여름밤의 영화상영회

건물을 돌면 다시 건물을 만나는 서울 도심 한복판,
각박한 일상을 살다보면 휴식이 필요하지만 쉽게 생활을 떠나가는 어렵습니다.
공간채비에서 함께 영화도 보고 맥주도 마시며 잠시 멈춤의 시간 어떨까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할머니의 먼 집
(DEAR GRANDMA, 2015)
다큐멘터리 | 이소현감독

아흔 세살의 할머니는
왜 자살을 택했을까?
할머니 손에서 자란 손녀의 눈으로
바라본 할머니의 일상!
가장 평범한 일상에서 포착한
소소하지만 특별한 이야기!

제41회 서울독립영화제,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 - 제 8회프로젝트 마켓 관객상 수상
제18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제16회 인디다큐페스티벌 초청 상영
'2016년 천안여성영화제'개막작, 제17회 제주여성영화제의 폐막작

2022. 8월

이미례 조합원 모친상
 이수진 조합원 부친상
 엄자옥 조합원 모친상
 김정석 조합원 부친상
 박수경 조합원 시부상
 정대근 조합원 빙모상

김윤정 조합원 모친상
 추경호 조합원 처남상
 임갑열 조합원 형제상
 임석규 조합원 모친상
 윤복식 조합원 모친상
 서단비 조합원 부친상

신동국 조합원 가족상
 김지영 조합원 시모상
 김남희 조합원 모친상
 김종석 조합원 모친상
 박사훈 조합원 빙모상
 오은정 조합원 시모상

2022. 7월

박선아 조합원 배우자상
 장성오 조합원 사돈상
 전승욱 조합원 지인상
 문치성 조합원 모친상
 허주영 조합원 부친상

권혁술 조합원 모친상
 이보은 조합원 시모상
 이복희 조합원 모친상
 이종대 조합원 부친상

최혜연 조합원 시부상
 김상현 조합원 지인상
 남영우 조합원 모친상
 신성호 조합원 모친상

2022. 6월

임승필 조합원 부친상
 이계령 조합원 시모상
 문성환 조합원 부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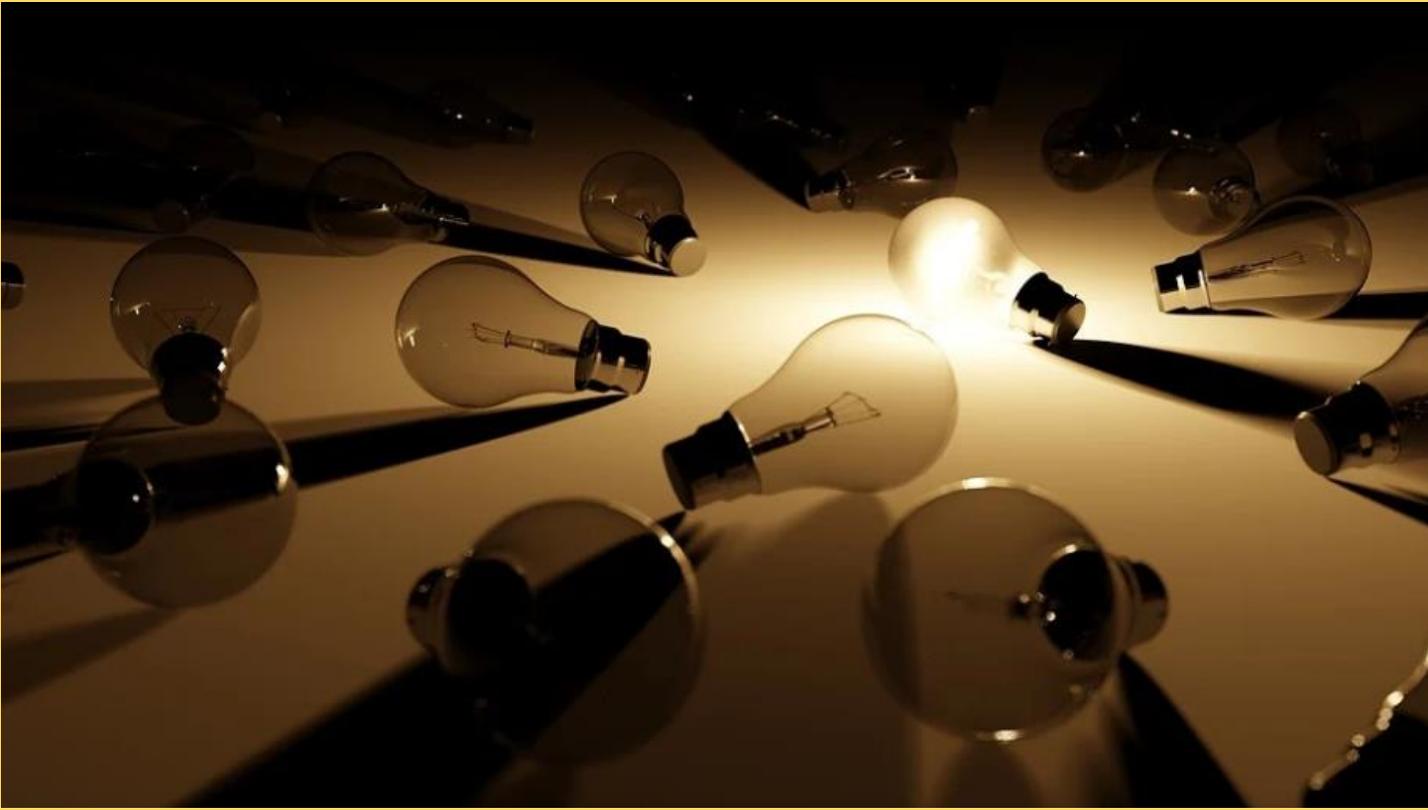
이병훈 조합원 가족상
 심은선 조합원 모친상
 박정미 조합원 모친상

방승범 조합원 모친상
 김홍범 조합원 부친상
 허남혁 조합원 조모상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해피 웰다잉을 준비하는 사람들
'채우고 비우고' 오픈채팅방에 초대합니다



**어떻게 늙어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지혜의 걸작이요,
삶이라는 위대한 예술에서 가장 어려운 장이다.**

- 앙리 -

'채우고 비우고' 오픈채팅방은 삶과 죽음을 의미 있게 설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간입니다.

삶과 죽음에 관한 의미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이며, 공간채비를 중심으로 스터디, 취미 생활, 교제를 위한 오프라인 모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여 링크) <https://open.kakao.com/o/gO5HMzme>

조합원에게 알립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유사상호 주의보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을 '한겨레상조'로 혼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상조'는 후불제업체로 우리 조합의 명칭과 앞의 세 글자 '한겨레'만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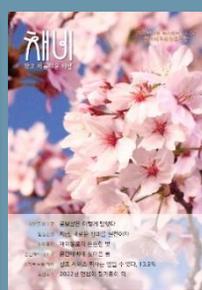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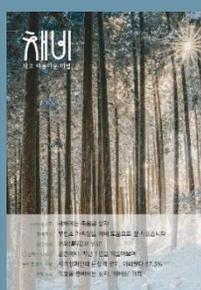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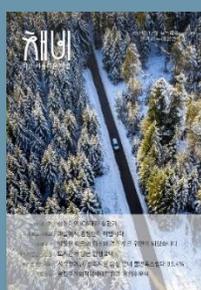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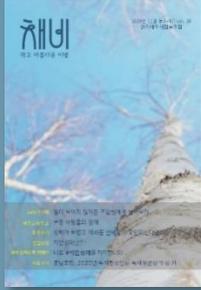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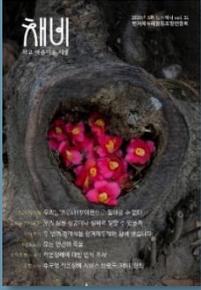
우리 조합의 명칭은 '한겨레두레협동조합', 브랜드는 '채비'입니다. 또한 우리 조합은 '상조'라는 단어 대신 '상포계' 혹은 '장례'라 표기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입상담: 1800- 9517 / 장례접수: 1588-9517

채비레터 과월호 목차

클릭하면 다운로드 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대한민국 대표 장례서비스 협동조합입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풀뿌리공제정신에 공감한 이들이 공동체의 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였습니다.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발적 경제조직이며 상업화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올바른 인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직계존비속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장례지도사와 접객관리사가 같은 조합원으로 한 식구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 직거래공동구매 방식으로 소박하고 품격 있는 장례를 구현하며 갈수록 고비용화 · 대형화 · 독과점화하는 병원장례식에서 벗어나 추모의 깊이가 있는 ‘작은장례’를 지향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

www.chaebi.life

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헤센스마트 B113호(사무실), 상가 201호 (공간 채비)

가입문의 1800-9517 장례문의 1588-9517 대관문의 02-739-9517

채비 뉴스레터는 조합원 참여를 환영합니다

장례 문화에 대한 투고(장례후기, 에세이, 시 등), 조합에 대한 의견, 개업/사업 소개 등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보내주세요(master@handurae.org)